

## 미륵선화고

A Study on Miluk - Sunwha

---

저자 (Authors)	김영태 Young Tai Kim
출처 (Source)	<a href="#">불교학보 3 4</a> , 1966.12, 135-149(15 pages) <a href="#">BUL GYO HAK BO 3 4</a> , 1966.12, 135-149(15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a> Institute for Buddhist Culture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392880">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392880</a>
APA Style	김영태 (1966). 미륵선화고. 불교학보, 3 4, 135-149
이용정보 (Accessed)	상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9/22 09:43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彌勒仙花攷

金 煥 泰

차 례

- |                        |            |
|------------------------|------------|
| 1. 說話의 內容과 그 意義        | (2) 彌勒 思想  |
| 2. 僧侶와 花郎과의 관계         | (3) 花郎의 意味 |
| 3. 彌勒과 花郎・國仙의 關係와 그 思想 | 結 語        |
| (1) 國仙의 意義             |            |

## 1. 說話의 內容과 그 意義

三國遺事에 있는 彌勒仙花條<sup>1)</sup>의 內容을 대강 살펴보면 그 첫머리에, 第24代 眞興王이 即位하자, 先王(法興王)의 뜻을 이어서 一心 奉佛하고 佛寺를 廣興하며, 國人으로 하여 僧尼되게 하였다는 것이 있고, 이어 原花를 받들었다가 失敗하고 다시 國家를 興하게 하고자 花郎・國仙을 받들어 風月道를 일으켰다는 史實이 있다.

다음 이어서 眞智王代에 僧 眞慈가 彌勒仙花를 懇求한 끝에, 彌勒仙花 未尸郎을 얻게 되었다는 說話가 있다. 여기서는 이 說話를 考察하려는 것이므로 좀더 자세히 옮겨 보고자 한다.

眞興王 때 花郎・國仙이 시작되어 다음 王인 眞智王代에 이르렀을 때 興輪寺에 眞慈라는 沙門이 있었는데, 언제나 堂主尊인 彌勒像 앞에 나아가서

“우리 大聖이시여, 花郎으로 되셔서(化作하여) 이 世上에 출현하소서. 제가 항상 가까이 모셔서 모든 것을 보살피 받들겠습니다(我常近辟容 奉以周旋).”

하고 發願 誓言하였다. 그 至極한 精誠으로 날마다 祈禱하였는데, 하룻밤 꿈에 어떤 沙門이 나타나 말하길 “熊川 水源寺에 가면 彌勒仙花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했다. 眞慈는 깨어 驚喜하여 그 寺를 찾아 나섰다. 10日 걸리는 먼 길을 一步一禮하면서 그 절에 이르니, 門 밖에 한 少年(郎)이 반가이 맞이하면서 小門으로 인도하여 寶軒에 案內하였다. 眞慈가 少年을 보고 “그대를 처음 보거늘 어찌 이토록 친절하뇨?” 하자, 少

1) 三國遺事 卷3 塔像 第4, 彌勒仙花 未尸郎 眞慈師.

年은 “나 또한 京師 사람이므로 스님께서 먼 길을 오셨기에 위로한 것입니다.” 하고는 곧 門을 나갔는데 간 곳을 몰랐다. 眞慈는 우연한 일로 생각하고 별로 이상해 하지 않았다. 다만 寺僧에게 이리로 오게 된 뜻을 말하고 여기 머물면서 彌勒仙花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寺僧은 그 天真하고 勤恪함을 보고 짐짓 “南쪽 千山이란 곳에 自古로 賢哲이 머물고 冥感이 많다 하니, 거기에나 彌勒仙花가 있을는지…” 했다. 眞慈는 또 그 말을 따라 그 山 아래 이르니, 山靈이 老人으로 변하여 “앞서 水源寺 門 밖에서 이미 彌勒仙花를 만나고 다시 무엇을 求하러 왔는가?” 했다. 眞慈는 깜짝 놀라 급히 本寺(興輪寺)로 돌아왔다.

그 뒤 한 달 남짓 되었을 때, 眞智王이 그 소문을 듣고 眞慈를 불러 그 事由를 묻고 말하길 “郎이 이미 京師人이라 自稱하였으니, 聖賢은 虛言을 읽는지라 城中을 찾아봄이 어떠한가?” 했다. 眞慈는 王旨를 받들고 徒衆을 모아 閭閻間을 두루 물색하였다. 마침 길 가 나무 아래서 놀고 있는 잘 생긴 小郎子를 본 眞慈는 놀라 반기며 “이가 彌勒仙花다!” 하고는 郎子에게 집이 어디며 이름이 무엇인가를 물었다. 이에 郎은 “이름은 未尸요 어려서 父母를 여의었으므로 家門을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이리하여 郎을 어깨에 태우고 가서 王에게 보이니, 王은 愛敬하여 國仙으로 받들(奉爲)었다.

國仙 未尸郎은 徒衆이 和睦하고 禮義風教가 여태까지의 國仙보다 뛰어났다. 이같이 模範을 보이기 7年 남짓하여 출연 간 곳을 몰랐다. 眞慈도 精進 修道하여 그 마친 바를 모른다(說者의 이야기가 끝에 붙어 있는 것은 省略한다).

이것이 全文의 內容이다. 虛荒해 보이는 이 說話 속에서 우리는 看過할 수 없는 重要的 歷史的 事實을 보게 된다. 물론 初頭の 眞興王 花郎 史實은 貴重無比하지만 彌勒仙花의 이 說話도 자못 興味롭고 珍貴한 史料인 것이다. 이 初頭の 文과 史記의 花郎 史實<sup>2)</sup>은 極히 簡略하게 花郎 關係를 傳한 直接的인 記錄(史料)임에 對하여 이 說話의 內容은 文學的인 形態로 傳해진 間接的 資料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說話로서 含蓄性이 있고 文學的인 叙述에 依하여, 그 속에 담겨 있는 歷史的 事實과 潜在해 있는 深大한 思想은 도저히 前者의 미치지 못하는 바라 할 것이다.

이 說話 속에서 우리는 첫째 興輪寺 沙門 眞慈가 彌勒像에게 花郎으로 化作하기를 祈願한 것에서 僧侶와 花郎과의 어떠한 關係가 있을 것임을 보게 되고, 다음 彌勒에게 花郎을 祈願하고 또 그 花郎을 彌勒仙花라 한 것에서 彌勒과 花郎 사이에도 特殊한 關係가 있음을 보게 되며, 그리고 또 國王이 奉爲한 國仙이 子弟(徒衆) 和睦하고 禮義風教가 不類於常이었다는 것에서, 國仙의 內容과 그 目的 같은 것을 어느 정도 짐작하게 한다.

2) 三國史記 卷4, 新羅 本紀 第4, 眞興王 37年條.

이와 같은 事實은 소홀히 다룰 수 없는 극히 重要한 問題로서 좀더 자세히 考察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花郎 問題는 그 思想의 면에서나 歷史性에 있어서 우리 民族에게 매우 貴重한 것이며 커다란 價値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아직 슬한 未解決 그대로인 現實이다. 이러한 事實에 비추어 이 說話는 花郎을 研究하는데 가장 貴重한 資料일 것이며, 前擧한 問題를 考察 究明한다면 조금이라도 花郎의 歷史를 理解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선 僧侶와 花郎과 彌勒과 國仙과의 關係가 보이는 이 說話 自體만으로서도 珍貴하다 하겠지만, 더우기 初頭에는 花郎 創設 記錄이 있고, 또 說話의 內容이 花郎 創設 年代에서 그리 멀어지지 않는 初期의 事實이라는 것 등에서도 이 說話의 研究的 價値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토록 重要한 問題이던서 극히 稀少한 資料 때문에 그 眞面目을 알기 힘든 花郎의 史實을, 說話 形式으로 傳하고 있는 이 彌勒仙花 條項은 여러모로 重要한 意義를 지니고 있다 할 것이다.

그래서 僧侶와 花郎의 關係, 彌勒과 花郎·國仙의 關係 및 花郎徒의 內面 思想 등으로 나누어 考察하려 한다.

## 2. 僧侶와 花郎의 關係

沙門 眞慈가 무슨 이유로 彌勒前에 花郎으로 出現하기를 간절히 빌고 바랐을까? 곧 어찌서 花郎을 그토록 懇祈願求했을까 하는 것이다. 어떻게 表現되어 있던 간에 우리는 여기서 一沙門이 훌륭한 花郎을 만나게 해 달라고 彌勒에게 祈禱한 것임을 볼 수 있다. 여기엔 필시 理由가 있을 것이며 沙門 眞慈가 特殊한 因緣이 있는 位置이었으므로였을 것이다. 花郎과 아무 상관 없는 沙門이라면 무엇 때문에 그토록 정성 들여 懇求했을 것인가?

여기서 沙門과 花郎과의 관계 및 花郎을 求하기 위해 그처럼 간절해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까닭을 可能한 限 밝혀 보아야겠다.

眞慈는 彌勒에게 祈願할 때 “大聖께서 花郎으로 되셔서 와 주신다면 常親近辟容하고 奉以周旋하겠읍니다.” 했다. 그리하여 10日 걸리는 먼 길에 一步一禮하면서 彌勒仙花를 맞이하러 갔고, 다시 城中에서 찾아보라는 王旨에 徒衆을 모아 城內를 두루 찾았으며, 찾고는 기뻐서 어깨에 태우고 王에게로 갔으며, 그 뒤 國仙未尸郎을 7年 동안 모시고 있었음을 보게 된다.

이러한 일들로 미루어서 眞慈는 沙門이면서도 단순한 沙門만이 아니라, 花郎과 特別한 관계에 있었던 身分임을 알겠다. 그 特殊한 身分이란 어떤 것이었을까? 이는 의심할 여지없이 眞慈는 當時의 郎徒였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일개 沙門으로서 花郎

이 나타나기를懇求할 리도 없었을 것이며, 또 7年을 모시고 常親近降容하여 奉以周旋할 까닭도 없겠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一言도 眞慈가 耶徒였다는 것을 明示해 있지 않다. 興輪寺의 僧이라고만 되어 있으니, 僧侶의 身分으로서도 耶徒가 될 수 있던 말인가? 이 문제에 대하여 다음 몇 가지 史實을 引證해 봄으로써 眞慈의 位置를 究明하고자 한다.

① 眞平王 때의 神僧 惠宿은 好世郎의 耶徒였는데, 好世郎이 國仙의 자리를 물려났을 때 惠宿 또한 隱居했다<sup>3</sup>.

② 金歆運이 少年 적에 花郎 文努의 門下에 있었는데, 하루는 徒衆이 무슨 말 끝에 어느 戰死 留名者에 대해 言及되자 歆運은 慨然히 눈물을 흘려 激勵 思齊의 뜻이 있을 때, 同門의 僧 轉密이 “이 사람은 싸움 터에 가면 반드시 돌아오지 않겠다.”고 했다<sup>4</sup>.

③ 國仙 夫禮郎은 徒衆이 1,000名인데, 그 중에 安常을 親함이 尤甚했다. 夫禮郎이 徒衆을 거느리고 金蘭에 놀이갔을 때 狄賊에게 잡혀 가게 되었다. 그 때 門客(徒衆)은 모두 어쩔 바를 몰라 돌아왔는데, 홀로 安常만이 追迹했다. 때마침 宮中 內庫에 두었던 國寶 琴笛마저 없어져 國家의 큰 근심이 되었을 때에, 栢栗寺의 大悲觀音이 이 모두를 救해 오매 王은 크게 驚喜하여, 栢栗寺는 물론 國內에 賞을 베풀고 夫禮郎을 大角干에 封하고 安常師를 大統으로 삼았다<sup>5</sup>.

④ 景德王 19年에 2日[두 해]이 並現하여 이를 祓禳하고자 緣僧을 請하여 散花功德을 지으려고 했을 때 마침 그 앞 길을 가던 月明師가 緣僧으로 불리어 開壇作啓하면서 王에게 아뢰기를

“臣僧은 國仙의 徒로 屬해 있어서 聲梵은 못하고 鄉歌를 알 뿐입니다.” 했다<sup>6</sup>.

⑤ 憲安王이 國仙 膺廉郎을 사위로 삼고자 하매, 膺廉은 두 公主 중 누구를 擇하느냐에 猶豫 未決할 때 郎의 徒 가운데서 上首인 範敎師가 郎에게 長公主를 택하면 반드시 三美가 있을 것이라 했다<sup>7</sup>.

이와 같은 史例에서 우리는 僧侶이면서도 耶徒로 있는 事實을 알 수 있다.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花郎徒들은 모두 14,5歲에서 20歲 미만의 良家子弟라고 생각하는데, 앞

3) 三國遺事 卷4 義解 第5, 二惠同座(釋惠宿傳).

4) 三國史記 卷47 列傳 第7, 金歆運.

5) 遺事 塔像 第4, 栢栗寺.

6) 遺事 感通 第7, 月明師 兜率歌.

7) 遺事 紀異 第2, 48 景文大王. 三國史記 新羅 本紀 第11, 憲安王 4年條에는 同 事實을 範敎의 名이나, 徒之上首라고는 記하지 않고 단지 興輪寺 僧이라고만 있다.

에서 본 惠宿·轉密·月明·範教 등의 耶徒가 僧侶임이 뚜렷한 것에서 우리는 一位 沙門도 그 徒衆에 끼어 있음을 알게 된다. 緣僧으로 祈禱한 月明師나, 三美之事를 豫見한 範教師 등에서 어린 靑少年이 아닌 一位 大師인 것을 짐작하겠으니, 沙門 耶徒들은 一般 耶徒와 같은 靑少年이 아니었음도 알겠다. 그리고 또 花耶과의 관계도 特殊했음을 볼 수 있다. 夫禮耶과 安常의 事實에서 親安常尤甚하였으므로 國仙이 被掠되었을 때에, 千徒 모두 도망해 왔지만 홀로 위험을 무릅쓰고 따라갔다고 된 것으로서는, 安常이 일개 耶徒로서 특별히 國仙과 親했던 것으로만 알겠으나, 그 뒤 國王이 賞을 내릴 때 “安常 스님(師)으로 大統을 삼았다.”는 사실에서 비로소 安常이 일반 耶徒가 아니라, 沙門으로서의 耶徒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歆運이 慨然해 할 때 오직 僧侶 耶徒인 轉密이 그의 將來에 言及했다는 것도 僧侶 耶徒의 特殊한 位置 때문이 아니었을까 한다. 또 膺廉耶의 徒 沙門 範教를 徒衆의 上首라 表現해 있고, 따라서 國仙에게 有利한 判斷을 進言했다는 것 등에서도 僧侶 耶徒는 一般 耶徒와 다른 位置에 있었고, 國仙과 특수한 관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事實들을 종합해서 우리는 眞慈가 國仙에게 항상 親近辟容하고 奉以周旋한 內面 소식을 짐작하게 되리라고 본다. 즉 安常이 國仙과 親함이 尤甚했다는 것도 보통의 友情을 表現한 것이 아니고, 또 위험을 무릅쓰고 國仙을 救하고자 쫓아간 것도 단순한 友情만으로서가 아닌 親近辟容 奉以周旋하는 僧侶 耶徒였기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다. 範教의 경우 上首라고 한 것도 모든 耶徒 가운데서 가장 나이 많고 또 항상 國仙을 親近辟容하여 奉以周旋하는 位置였으므로 表現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때문에 國仙도 어려운 일에 부닥치면 沙門 耶徒에게 물고<sup>8</sup>, 또 그의 指示대로 따랐음을 보게 된다.

客說 같지만, 이런 사실들을 類推함으로써 우리는 眞平王代 三花耶의 徒가 擘星의 怪로 楓岳놀이를 그만 두려고 할 때 노래를 지어 불러 星怪를 없애고, 倭兵을 물러가게 하여 花耶들이 無事히 놀이를 갔다 오게 했던 融天師<sup>9</sup>도 僧侶 耶徒가 아니었을까 싶다. 즉 그는 國仙을 奉以周旋하기 때문에 徒衆의 難問題까지 해결해 주고, 團體의 圓滑한 운영을 위한 위치에 있는 僧侶 耶徒이므로 一大事인 楓岳놀이를 무사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기 때문이다. 그리고 月明의 경우 國王이 散花功德하는 자리에서 一位 緣僧으로 뽑혔다는 사실에서 보면, 外形上으로는 일반 沙門과 조금도 다른 없는 沙門이므로 그가 스스로 國仙之徒임을 밝히지 않았던들 아무도 그가 耶徒임을 몰랐을 것이다. 範教 역시 三國史記에서 膺廉耶이 興輪寺 僧에게 물었다<sup>10</sup> 고만 記錄된 것으로서는 遺

8) 同 憲安王 4年, “...然尙疑未決 乃問興輪寺僧(徒之上首範教師)……”.

9) 遺事 感通 第7, 融天師擘星歌.

10) 前舉 註 5), 6).

事의 明示가 없다면 단지 僧으로서, 耶徒였다는 사실은 모르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眞慈도 耶徒란 말이 一字도 없고 일반 沙門과 조금도 다름 없는 沙門으로 表現되었지만, 그가 國仙을 항상 가까이 모시고 보살피 받들은 사실과 훌륭한 花郎을 求하여 國仙으로 모시려고 한 것, 그리고 徒衆을 모아 彌勒仙花를 찾아 나선 것 등의 內容으로서도 多數의 實例를 봄으로써 耶徒인 사실에 의심할 수 없는 것이다. 이로 미루어 融天 師도 明示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행여 耶徒가 아니었을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例證들로 미루어 보아 眞慈의 耶徒의 위치가 명확하게 되었다고 보겠으며, 常親近暉容 奉以周旋은 바로 國仙에 대한 僧侶 耶徒로서의 任務이며, 그 生活의 內面임도 알게 되었다 할 것이다. 그리고 城內를 찾아보라는 王旨를 따라 閭閻間을 찾아 나설 때 “會徒衆”했다는 것도 다른 무리가 아니라, 國仙을 잃은 耶徒의 무리로서 이들을 모아 國仙감을 찾아 나선 것으로 볼 것이니, 僧侶 耶徒를 徒中の 上首라고 表現할 수 있음도 짐작하겠다.

이와 같이 眞慈는 沙門이면서 耶徒이기 때문에 그토록 간절히 花郎의 出現을 願求했음을 알겠다.

이리하여, 우리는 이 說話에서 보여지는 事情을 다음과 같이 類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당시 國仙이 무슨 事故로 闕位되어, 國仙 없는 徒衆이 새 國仙이 들어설 때까지 혼자져 있을 때, 그 團體의 운영에 가장 主要한 位置에서 國仙을 補佐하던 僧侶 耶徒 眞慈가 더욱 훌륭한 花郎을 國仙으로 모시고자 彌勒尊에게 懇祈하여 마침내 理想的 花郎 자인 未尸耶을 얻어 王에게 보이매, 王이 國仙으로 삼았으리라는 것이다.

### 3. 彌勒과 花郎·國仙의 關係와 그 思想

沙門 眞慈가 花郎을 懇求한 사실에서 우리는 僧侶 耶徒의 存在를 알았다. 花郎 徒衆에는 一般 貴族의 少年이 아닌 成人인 沙門도 있어서 특별히 國仙을 가까이 모시고 모든 것을 주선했다는 것도 보았다. 그러면 耶徒 沙門 眞慈는 어찌서 彌勒 大聖이 직접 花郎으로 되어서 出現하기를 빌었던가? 堂主라고 있기에 자기의 處所인 法堂의 主尊 佛이 마침 彌勒이기 때문이었을까? 그렇지 않다면 어찌 하필 彌勒에게 빌고, 또 직접 彌勒이 化作하기를 願했던가? 여기서 우리는 다시 花郎과 彌勒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를 考察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연 新羅에서의 彌勒 信仰도 살펴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彌勒(Maitreya)은 佛在世 때의 弟子였으나, 現在 兜率天에 上生하여 諸天衆 人民을 위해 說法하고 있는 菩薩로서, 未來(當來) 人壽 8萬 4千歲 때에 嚮法 Sankha 轉輪聖

王의 治世에 下生하여, 龍華樹下에서 成佛하고 釋迦佛 未度の 有緣 衆生을 三會의 說法을 通하여 濟度한다는 것이다<sup>11</sup>.

이러한 彌勒에게 花郎이 되어 달라, 곧 훌륭한 國仙을 出現시켜 달라고 祈願한 것이다. 만약 彌勒이 花郎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어찌하여 그토록 彌勒仙花를 懇求했을까 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彌勒의 花郎 關係를 認定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大聖이 化作한 花郎을 彌勒仙花라 하여 밀연적인 關係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즉 새로 맞이하게 된 國仙 未戶郎이 彌勒仙花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彌勒仙花 외에도 花郎과 미륵의 關係 史實을 볼 수 있다.

金庚信이 花郎이 되었을 때 그 徒를 龍華 香徒<sup>12</sup>라 한 것이다. 龍華 香徒의 龍華란 말할 것도 없이 미륵을 가리킨 것이다. 앞에서 본 바같이 兜率天에서 下生하여 出家하고, 龍華樹下에서 成道하여 彌勒佛이 되어 說法 敎化한다는 것으로, 龍華란 이 彌勒成佛의 法會를 表現한 것인 同時에 彌勒佛을 指稱한 것이기도 하다. 香徒란 禮佛 焚香之徒 곧 信佛의 結社(團體)이다. 이로써 龍華 香徒란 彌勒佛 禮香之徒, 곧 彌勒信仰의 모임 [結社=團體]이라는 뜻을 알 수 있다. 말하자면 花郎 庚信의 徒는 彌勒信仰의 모임 [團體]인 것을 明示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또 國仙의 徒인 僧 月明이 國家的인 日怪祈禳 行事인 散花功德의 開壇作啓에서 國仙의 徒이기에, 鄉歌로써 儀式한다면서 兜率天의 미륵에게 散花하여 노래한 것을<sup>13</sup> 볼 수 있다. 이 또한 國仙徒들이 미륵을 信仰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을 보인 것이라 하겠다. 만약 月明이 儀式에 임하여 “臣은 國仙의 徒에 屬해 있으므로 梵音(佛敎의 開壇作啓하는 儀式에서의 執行歌詠)은 서투르고 鄉歌를 좀 알 뿐이라.”고 하여 自身の 입장을 밝힌 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가 兜率歌를 불렀던 미륵을 받들었던 考證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사실에서 우리는 月明이 兜率歌를 불러 미륵에게 散花功德을 베푼 것도 단순한 당시의 儀式이 아니라, 國仙의 徒로서 鄉歌式으로 한 것이므로 功德의 대상도 미륵으로 한 것은 國仙徒의 입장에서 곧 그네의 信仰 대상인 미륵에게 散花한 것임을 알게 된다.

이러한 사실들로, 우리는 國仙徒들이 미륵을 신앙했고, 미륵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여 生活했던 것을 알 수 있겠다. 그렇다면 僧侶 郎徒 眞慈가 미륵에게 發願한 意味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곧 自己 結社(徒=團體)의 主尊이며 신앙 대상인 미륵이므로 그토록 懇祈했을 것이다.

11) ‘佛說觀彌勒菩薩上生兜率天經’, ‘佛說彌勒大成佛經’, ‘佛說彌勒下生經’ 등.

12) 三國史記 卷41 列傳1, 金庚信上.

13) 三國遺事 卷5 感通7, 月明師兜率歌.

이리하여 彌勒이 花郎과 관계 있음을 알게 되는데, 彌勒仙花와 國仙이란 문제에서 그 관계의 사정을 좀더 자세히 具體的으로 考察해 보려고 한다. 즉 國仙과 花郎의 名稱을 考察함으로써 彌勒과 어떤 관계가 있으며, 무슨 事由 때문이었던가를 究明하려는 것이다.

### (1) 國仙의 意義

이 說話의 初頭, 眞興王의 花郎 創設 史實에서 “良家の子弟 중에서 德行 있는 자를 뽑아 花郎으로 삼고, 薛原郎을 國仙으로 받들었다. 이것이 花郎·國仙의 始이다.”<sup>14</sup> 라는 것을 보게 된다. 그리고 또 한 代에 數人의 花郎이 함께 있었다는 事例<sup>15</sup>를 보게 되는데, 이러한 사실들로써 우리는 國仙이 花郎의 上首(最高) 花郎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 같은 사실이라도 史記에서는 國仙이라는 文字를 통 볼 수 없었다. 때문에, 어떤 學者는 國仙의 존재를 否定하여, 後世 高麗에서 新羅 花郎에 대한 高麗的인 追稱의 稱呼라고 했다<sup>16</sup>. 이는 말할 것도 없이 이제 보아 온 諸事實을 詳察 못하고 遺事 所傳의 諸記錄을 소홀히 취급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國仙이란 名稱이다. 文字대로 본다면 나라의 神仙이 된다. 그러면 國仙이란 나라의 神仙이란 말인가? 花郎의 上首를 나라의 신선으로 받들었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어찌서 佛教의 僧侶 郎徒가 항상 가까이 모시고, 모든 것을 보살폈을까? 앞에서 보아 온 바대로 彌勒佛을 신앙하며 僧侶 郎徒가 받들어 모시는 國仙이 神仙이라면 우습다. ‘芝峰類說’에도 國仙의 仙이란 眞仙(神仙)이 아니라고 있다<sup>17</sup>. 國仙이 나라의 神仙이란 뜻을 갖고 있지 않다면 다른 意義가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여기서 우리는 仙字의 當時의인 해석을 보지 않을 수 없다. 즉 仙은 무엇을 뜻한 것인가 하는 것이다.

仙의 用例로 우선 彌勒仙花를 본다면, 여기서의 仙은 彌勒을 가리킨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彌勒仙花란 名稱은 “願我大聖化作花郎……”이라고 한 것에 依해서 비로소 생긴 것이다. 즉 眞慈가 “大聖이시여, 花郎으로 化現하소서.”라고 한 말에서 나온 것이다. 때문에 彌勒 大聖이 化現한 花郎을 일러서 彌勒仙花라 한 것이다. 그렇다면 彌勒仙花는 바로 彌勒 大聖의 花郎이므로 彌勒仙은 彌勒 大聖으로서, 여기서의 仙은 大聖을 指한 것이 된다.

大聖은 곧 미륵을 尊稱한 同義語이므로 결국 大聖이라는 말은 미륵을 가리킨 것인

14) “...選良家男子有德行者改爲花郎 始奉薛原郎爲國仙 此花郎國仙之始”.

15) 遺事 感通7 融天師 普星歌 “第五 居烈郎 第六 實處郎 第七 寶同郎等 三花之徒……” 遺事 紀異2, 48 景文大王 “國仙 遜元郎·譽昕郎 桂元叔宗郎等……”.

16) 三品彰英 ‘新羅花郎의 研究’ 250.

17) 李暉光 芝峰類說 “...謂之仙者 蓋其時謂郎徒爲國仙故云 非眞仙也”.

同時에, 仙도 미륵을 가리킨 것임을 알 수 있다. 이같이 보면 彌勒仙化 역시 同義 重複語이다. 순전히 뜻으로만 본다면 仙花만으로 稱해도 될 것이다. 仙花는 곧 大聖이 化現한 花耶, 곧 彌勒 化現의 花耶이므로서이다. 그러나, 이는 仙花를 더 뚜렷하게 나타내고 또 그 性格을 強調한 것으로 볼 것이니, 그냥 仙花라 하는 것보다는 彌勒仙花라고 하는 편이 더 자연스럽다고 할 것이다. 말하자면 佛敎 用語에서는 흔히 쓰이는 것으로 無量壽如來佛·諸佛如來·諸尊菩薩摩訶薩 등에서 重複의 呼稱을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즉 如來나 佛, 菩薩이나 摩訶薩은 뜻으로 따져 보면 同義語이지만 이렇게 重複的 表現을 함으로써 더욱 神聖性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例로써도 仙花의 仙이 彌勒을 指한 것임을 의심할 수 없다. 그리고, 佛家에서는 佛을 흔히 仙으로 記하니, 곧 佛陀를 金仙이라 하고, 彌陀佛을 阿彌陀仙<sup>18</sup>이라 하며, 彌勒을 一切智光仙人<sup>19</sup>이라 한다. 또 遺事에서 月明의 兜率歌解에 “...遠遶兜率大仙家”라는 것이 있으니, 이 兜率 大仙家の 仙 역시 彌勒을 가리킨 것이다.

이리하여 國仙의 仙字는 彌勒을 뜻한 것이지 神仙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아 오면 庾信의 徒를 龍華 香徒라고 한 앞에서 본 뜻을 명확히 할 수 있고, 國仙은 미륵을 象徵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國仙은 나라의 神仙이 아니라, 나라의 彌勒佛이라는 뜻임을 알겠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未尸郎을 國仙으로 國王이 받들(奉爲)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國家(王)에서 奉爲했다는 表現의 記錄<sup>20</sup>으로써도 國仙이 단순한 靑少年 단체의 長으로서의 意義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고, 이리하여 우리는 僧侶 郎徒 眞慈가 그토록 懇篤히 彌勒前에 祈願한 所以를 짐작할 수 있으니, 즉 마침 關位된 國仙을 물색할 때 정말 훌륭한 國仙감을 求하기 어려우므로 끝내는, 바로 主尊이며 團體의 信仰 대상인 彌勒佛에게 “大聖이시여, 大聖께서 직접 花耶으로 나투어 주소서. 國仙으로 모셔서 정성껏 받들겠습니다.”고 한 것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考察의 결과, 우리는 미륵과 國仙과의 관계를 究明하여 國仙이 國家에서 받은 나라의 미륵부처님임을 알게 되었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소년 未尸郎을 얻어 기쁨에 넘쳐서 어깨에 태워 宮으로 들어가 王에게 보이고, 王이 또 愛敬하여 國仙으로 받들었다는 이야기에서 우리는 國仙의 존재를 아기미륵부처님 같은 귀여움까지 느낄 수 있다.

## (2) 彌勒 思想

彌勒을 象徵하여 花耶이라 하고, 또 最上首者를 國仙이라 하여 나라의 미륵부처라고

18) 龍樹十二禮 등.

19) 一切智光明仙人慈心因緣不食經.

20) “...孝昭王奉, 夫禮耶爲國仙”(遺事 塔像4, 栢栗寺), “...奉薛原郎爲國仙”, “...王敬愛之 奉爲國仙”(彌勒仙花 未尸郎 眞慈師).

까지 이름한 까닭이 무엇이었던가? 이 內面的인 문제를 대강 考察해 볼 필요가 있다. 곧 新羅에서의 미륵 思想을 理解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니, 왜냐하면 여기서 新羅가 初期부터 미륵 신앙을 受容하고 應用한 面貌를 알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미륵은 어떠한 思想을 隨伴하고 있으며, 그 內面的 또는 表面的 상징은 어떠한가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앞에서 잠깐 본 것처럼 미륵은 현재 兜率天에 住하고 있는 菩薩로서, 未來 이 땅에 下生하여 成佛하고는 釋迦佛 未度の 有緣 衆生을 濟度한다는 것이다.

彌勒이 下生할 때는 이 땅(閻浮提)의 土地는 넓고 平坦하며, 그 나라 사람들은 모두 溫順하여 語言이 恭遜하고 和睦 相愛하여 諍訟 鬪爭이 없으며, 雨順風調하여 災難이 없으며, 穀糧은 豐盛하여 모두 집집이 門을 닫지 않고(도적이 없으므로) 산다는 것이다. 이 때는 모든 것이 淨化되어 地上의 最極한 理想郷으로서 아무런 고통이 없으나, 오직 三病이 있으니, 먹는 것과 便利보는 것과 늙는 것이라 했다. 그러나, 이것도 現代와 같은 食·便·老가 아니라, 밥의 쌀도 향기가 더할 수 없으며 勞苦도 가장 적게 들어 食生活이 해결되며, 便利 때엔 땅이 갈라져서 마친 뒤엔 다시 地合하여 거기서 연꽃이 솟아나 穢氣를 없애며, 또 늙어서 죽음이 가까와 오면 스스로 걸어 屍林으로 가서 고통 없이 죽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이 때는 金銀의 七寶가 길바닥에 버려져 흡사 들과 사금파리처럼 밟혀 있으며,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가리켜 “이것을 옛날 사람들은 가장 귀중한 보배라 하여 아끼고 욕심을 내어 서로 죽이고 싸웠단다.”고 하면서 서로 돌아보며 웃는다는 것이다<sup>21)</sup>.

여기서 우리는 彌勒이 단순한 未來佛로서, 또는 上生이나 下生만의 信仰으로 보기보다도 이 속에 담겨진 思想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미륵 出現 때의 世界가 完全無缺한 現實的 理想 世界라고 하는 것은, 現世界가 그와는 꼭 正反對되는 險하고 苦痛스러운 世界인 것에서 發展시켜, 現實의 不滿足을 充足시키고 現世의 災難苦逆을 淳化시키려는 人間의 欲求가 잘 表現되어 있는 同時에, 그 人間 最大의 欲求가 다 實現된 理想 世界가 彌勒佛의 世界라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災難이 全無하다는 것에서 釋迦佛 世界보다 더 훌륭한 理想 世界라는 것과 또 釋迦佛 未度の 有緣 衆生을 濟度한다는 것에서 釋迦佛의 未完을 補完한다는 思想을 보게 된다. 또 여기서 볼 수 있는 當來니, 未來니 하는 것에서 새로움, 젊음, 希望, 그리고 現實보다 더 나은 理想, 그리고 完全한 것 등을 느낄 수 있으니, 現存한 彌勒像 相好가 모두 젊고 어린 것에서도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미륵에게서 完全한 理想 世界 실현과 衆生의 無漏濟度, 그리고 새

21) '彌勒成佛經' 및 '彌勒下生經'.

롭고 깊고 훌륭하고 和合의 圓滿한 思想이 內包되어 있고, 또 이 모든 思想을 상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世界를 달리 한 他方の 極樂이, 生死가 없고 無常이 없어서 淨土로서는 이 彌勒의 好世淨土보다도 더 優勝<sup>22</sup>하지만, 이는 人間의 死後에 限定되어 있으며 결코 現實化할 수 없는 他方の 特定된 超現實의 淨土인데 比하여, 彌勒 好世國土는 바로 이 地上이며, 또 미륵의 慈心の 教化力에 의하여 이루어진 淨化 淳和의 社會이므로 흔히 佛說에서 볼 수 있는 淨土와 佛土의 理想化와는 다른, 어디까지나 現實의이며 實現性이 있는 理想 國土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思想을 含有하고 또 상징하는 彌勒 信仰이기 때문에, 당시 新羅에서는 理想的 國土 建設을 위해 받아들이고 信奉하였을 것이다. 특히 法興王이 興國利民의 意圖<sup>23</sup>에서 佛法을 興布하였고, 뒤를 이은 眞興王은 佛教를 國教로서 그 기틀을 確固히 하고 政教上 佛教를 應用하여 많은 業積을 남겨 드디어는 三國 統一의 터를 마련해 놓았다. 이런 稀世의 英主며 篤信의 奉佛王<sup>24</sup>인 眞興王인지라, 衝天의 意欲으로 強大한 理想 國家를 建設하고자 함에 있어, 이러한 彌勒의 모든 利點과 思想을 특히 그 國土의 理想的 現實性을 受容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때문에 眞興王은 이러한 彌勒 思想을 應用하여 國仙徒를 만들고 彌勒을 상징한 花郎으로 그 徒[단체]를 領導하게 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그리하여 國王이 奉하는 國家의 미륵이라고, 이름까지 國仙이라고 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는, 彌勒 下生에 있어서 曠法 轉輪聖王의 治世이다. 彌勒이 出現할 國土에 轉輪聖王이 同時에 正法으로서 治國한다는 것이다.

轉輪聖王(Cakra-varti-rājan)이란 王中の 大王으로서, 七寶를 成就하고 四德을 具足하여, 寶輪(金輪)을 轉하여 四天下를 調伏 統一하고 仁和 善과 德의 正法으로서 治化한다는 것이다<sup>25</sup>. 이러한 轉輪王과 미륵의 同時 出現의 思想을 생각할 때, 國仙이 미륵을 상징한 것이라면 新羅 國王은 轉輪王으로 比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우리는 眞興王의 業積에서 그러한 面을 엿볼 수 있으니, 여백껏 小國으로 偏狹했던 一隅에서 新興國으로 發展시켜 國土를 擴張하고 治政을 一新하여, 장차 統一의 基業을 마련한 그 意欲과 氣魄에서 轉輪聖王의 風度を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으며, 또 太子의 名을 銅輪이라 한 것이나, 次代의 王이된 眞智王을 金輪이라 한 것에서도 더욱 轉輪聖王 思想을 알게 하는

22) 元曉의 '遊心安樂道'에도 兩 淨土를 比較하여 西方極樂淨土가 優함을 論證하고 있다.

23) 海東高僧傳 流通., 釋法空傳, 遺事 卷3 原宗興法 厭濁滅身條.

24) "王幼年即位 一心奉佛 至末年 祝髮被僧衣 自號法雲"(三國史記 卷4 眞興王條 및 海東高僧傳), "...一心奉佛 廣興佛寺 度人爲僧尼"(遺事 彌勒仙花條).

25) 中阿含 第11 四洲經·長阿含經 第18 轉輪聖王品·雜阿含經 第27·大智度論 第25 등.

것이라 하겠다.

이렇다면 國王은, 國仙을 나라의 미륵으로 받들었기 때문에 스스로는 轉輪王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眞興王 以後의 歷代王이 統一을 위해 苦心하고 노력한 史實들에서도, 眞興王의 이와 같은 理想 國家 四方 統合의 轉輪王 思想을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본다면 眞興王은 彌勒 思想에 의하여 “世上은 安樂하여 도적이 없어 城邑 집집마다 門을 닫지 않고, 또한 水火刀兵과 모든 飢饉이나 毒害의 難과 衰惱가 없고, 사람들은 항상 慈心으로 恭敬 和順하여 諸根을 調伏하며 語言이 謙遜하다.”<sup>26</sup>의 理想 國家에서 “이 때 그 나라에 轉輪聖王이 있어 四天下를 다스린다.”<sup>27</sup>의 轉輪王 治世를 實現시키려고 國家의 彌勒을 받들어 “彌勒의 慈心 訓導”<sup>28</sup>로 有爲한 人材를 養成하고 恭敬和順·言語謙遜한 國民의 和合을 위한 花耶 結社를 만든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는 彌勒仙花條의 첫머리에 있는 眞興王 花耶 史實에 “王은 國家를 興하게 하려면 먼저 風月道를 일으켜야 한다고 생각했다(王又念欲興邦國須先風月道).”는 것과 “이로써 國人の 惡을 고치고 善을 행하여 上敬下順했다(…自此使人悛惡更善上敬下順……).”라는 데서 證明된다고 할 수 있으며, 또 國王에게 받들려 國仙이 된 未尸郎이 그 徒衆 和睦하고 禮義風教가 不類於常했다는 사실에서도 彌勒의 慈心訓導에 依한 恭敬和順·言語謙遜의 內容과 너무나 같음을 보게 된다. 여기서 彌勒 出現의 好世淨土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 花耶徒의 目的이며, 內容인 것도 알 수 있다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彌勒仙花의 說話에 의한다면, 眞興王이 일으킨 國仙徒의 思想이 바로 다음 代인 眞智王代에서 完全 실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金輪王(轉輪王)의 代에 미륵이 化現(下生)해서 禮義風教를 世上에 빛내었다고 있는 것에서, 眞興王의 意圖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이는 說話의 思想 表現이 그렇다는 것이다).

### (3) 花郎의 意味

國仙이 미륵을 상징하고 나아가서는 미륵의 化現으로 본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花郎이란 무슨 뜻이며, 어찌하여 花郎이라 했는가 하는 문제도 따라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花郎을 알게 하는 文獻에

“美貌의 男子를 取하여 粧飾하고 花郎이라 이름하다.”<sup>29</sup>

26) “時世安樂 無有怨賊劫竊之患 城邑聚落無閉門者 亦無衰惱 水火刀兵及諸飢饉毒害之難 人常慈心恭敬和順調伏諸根 語言謙遜”(成佛經 下生經).

27) “其國公時 有轉輪聖王 名瞿佉 有四種兵 不以威武 治四天下……”(同上經).

28) 彌勒成佛經.

29) 三國史記 卷4 眞興王 37年條.

“貴人子弟 중에 美한 者를 擇하여 傅粉粧飾하고 이름하여 花郎이라 하다.”<sup>30</sup>

“風姿가 美한 男子를 擇하여 珠翠로 장식하여 花郎이라 하였다.”<sup>31</sup>

는 것을 볼 수 있으니, 이에 依하면 花郎은 貴族子弟 중에서 美貌의 少年을 화장하고 장식하여 화려하게 꾸민 者를 이름임을 알 수 있다. 즉 花粧하여 꾸민 男子, 꽃같이 아름다운 郎子라는 뜻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花郎이란 단지 “곱게 단장한 예쁜 郎子”라는 뜻만으로 불리어진 이름뿐으로 보기 쉽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여기서 花郎을 粧飾했다는 그 事實을 檢討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무슨 理由로 곱게 꾸며 단장했을까 하는 것이다. 或者는 源花가 女性이었기 때문에 그에 이어서 생겨진 花郎이므로 女子처럼 꾸민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sup>32</sup>

그러나, 앞에서 본 것처럼 國仙이 彌勒思想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想起하여 花郎을 粧飾한 緣由도 다음에서 알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즉 미륵이 下生하여

“...身相具足 端正無比 成就相好 ——相 八萬四千好 自莊嚴 如鑄金像……”<sup>33</sup>

이라는 彌勒의 相好 莊嚴을 그대로 모방한 것으로 볼 것이니, 花郎은 國家의 미륵이므로 莊嚴하였음을 알게 한다. 그리고 또 그 國土 人民의 面目이 모두 桃花色같이 아름답다<sup>34</sup>는 것에서도 花郎의 傅粉粧飾했다는 理由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리하여 단순히 粧飾을 했대서 또는 곱게 꾸민 郎子라서 花郎이라고 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겠다.

그렇다면 花郎이란 이름에 어떤 뜻이 있는 것일까? 왜 花郎이라 이름했을까? 우리는 다시 이 문제를 類推하여 考察하지 않을 수 없다.

앞에서도 본 바와 같이 미륵은 未來佛로서 現在의 未完을 補完 成就한다. 그 國土는 現世보다 더 完全 美化된 淨土이니, 이는 人類의 希望과 理想을 상징하고 表像한 것으로서 이 未來 또는 希望, 理想은 다시 새로움, 젊음을 意味한다고도 볼 것이다. 때문에 무한한 創意力과 新興의 氣運을 왕성히 발휘하던 당시 新羅는 여기에 興國利民의 方便<sup>35</sup>으로서 “新羅의 아기미륵부처(國仙)”를 세워 언제나 새롭고 희망에 찬 國家의 理想을 實現시킬 젊은 役軍, 장차 未來의 完成에로 지향하는 고운 사내, 곧 열매 맺을 꽃다운 男兒(郎子)라고 花郎이라 하여 一般的 愛稱·通稱으로 삼은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젊음과 새로움과 희망과 理想, 그리고 未來의 完成을 상징

30) 同上 引用의 新羅國記.

31) 李仁老 破閑集 卷下 “鷄林舊俗, 擇男子美風姿者, 以珠翠飾之, 名曰花郎……”.

32) 小品彰英 ‘新羅花郎의 研究’ P. 110.

33) ‘成不經’ 및 ‘下生經’.

34) ‘佛說彌勒來時經’.

35) “……花郎 國人皆尊事之 此蓋王化之方便也……”(海東高僧傳 釋法囊).

하고 있는 미륵은 花耶이라는 語義와도 相通한다 할 것이다. 이것이 三國 統一을 가져오는 原動力이 되고 찬연한 文化의 黃金期를 이룩하게 된 源泉이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알찬 榮光의 열매를 맺을 심상하고 고운 꽃다운 男兒에서 花耶의 참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본다면 花耶 역시 國仙과 같은 意義를 지닌 이름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美化하고 昇華시킨 鼓舞的 愛稱이라고 할 수 있겠다. 國仙이 아기부처님이란 可愛성을 內包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생각할 때 꽤 興味 있는 稱號라고 생각되며, 당시 新羅人의 풍부하고 섬세한 藝術的 情緒를 깊이 느끼게 한다.

여기서 다시 言及 않을 수 없는 것은, 同義語며 같은 對象의 이름이라면 어찌서 花耶이라 하며 國仙이라 하며, 또 國仙은 花耶 중의 上首 花耶을 指稱한다고 하느냐 하는 문제일 것이다. 이미 본 것처럼 花耶은 同代에 一人만이 아니었다. 즉 數個의 小團體 (group)가 있어서 그 group마다 小彌勒을 상징한 領導者 花耶이 있었으니, 그 花耶은 그 group에서 中心이 되어 있는 것이다. 여기에 이들 group을 總 統率하는 最高의 花耶이 있어야만 全體의 원활한 機能을 다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國家的인 機關으로서 權能을 부여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는 小團體 곧 一個 個的인 group이 아닌 國家的인 것이므로 國王이 받들어 國仙이라 하였으니, 國仙은 花耶의 國家的 權威가 內包된 좀 貴族의인 名稱이며 同時에 彌勒佛을 더 強하게 느낄 수 있는, 端的으로 미륵을 表現한 이름으로 볼 수 있다. 이에 對하여 花耶은 좀더 自然스럽고 個的이며, 그리고 美化시킨 一般의 意義가 있는 愛稱이라 볼 것이다. 花耶이 國家的 上首 花耶이 되면 國仙이라 하고, 國仙은 그 個的인 칭호로 볼 때 또한 花耶이 된다 하겠다. 이렇게 본다면 三國史記 같은 데서 國仙이라고 記하지 않고 花耶이라고만 記한 것을 理解할 수 있겠고, 이는 國仙의 存在를 否定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것이라 본다.

## 結 語

以上에서 彌勒仙花와 國仙·花耶이 보여 주는 內面 思想을 대강 考察한 결과, 우리는 花耶徒의 思想의 根源과 그 創意的 背景이 彌勒 思想임을 알게 되었다. 여기서 다시 당시 新羅人의 應用的 妙함과 創意的 풍부함을 보게 된다고 할 것이다. 즉 彌勒의 未來的 상징에서 젊음과 희망, 새로움을 發見하고, 그 理想國土 思想에서 花耶이라는 意義 甚深한 名稱과 國仙徒라는 微妙한 團體를 만들어 國民 思想을 融合하고 理想 國家 建設을 지향하여 民族 統一을 完遂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一篇의 興味 있는 彌勒仙花의 說話를 通하여 우리는 花耶에 대한 적지 않은 문제를 알게 된 것이다. 여기서 彌勒 思想이 당시 新羅人에게 미친 影響이 실로 컸

던 것을 보게 되고, 그 團體(徒) 속에 僧侶가 一員으로서 介在해 있었다는 것과 그 內面的인 役割의 重要性 같은 것도 發見하게 되었다.

이처럼 貴重한 史料이므로 그 說話가 文學的 方面으로나, 또는 內容上의 字句의 解釋, 地理的인 문제, 또는 社會性 같은 것에 亶해서도 문제거리가 없는 바는 아니지만 彌勒仙花라는 說話 自體가 보여 주려는 意圖와 그 歷史性에서 보아, 餘他의 문제는 다른 角度에서 取扱할 性格으로 돌려 버렸다. 그리하여 오직 彌勒仙花의 歷史的 指示性에 依해서 시방까지 無視되어 있던 國仙의 諸問題와 그 創設의 思想을 考察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워낙 史料가 缺落되어 있고, 관계 參考 文獻이 全無하다고 할 形便이므로 좀더 무게 있는 考證과 깊이 있는 研究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이, 自身の 無能과 非才의 辯明거리가 되었다고 하겠다.